



「죽을 권리」 주장하며 安樂死 지지

치료할 방법이 없는 말기증상의 환자를 그의 소망에 따라 안락사시키는 것은 「의(醫)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란 취지의 논문을, 미국을 대표하는 의사 그룹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지 3월 30일호에 발표했다. 이는 합법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간 널리 시행되어온 안락사를 공공연히 인정, 지지한 것으로서 윤리연구자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발표자는 미국의학회의 전 회장이었던 하버드의대의 「대니엘 페더먼」박사를 비롯한 12명.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5년전에도 거의 같은 멤버들이 환자의 요망에 따라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

킨 바있다. 그후 치료현장에선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예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렸거나, 회복될 가망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원하면 그것을 돕는 것은 윤리적으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발표자들은 「안락사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환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80건 이상이나 되고 있다. 안락사를 도왔다고 해서 벌을 받은 의사도 없다」고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선 최근 폐암사망률 급증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88년도판 「세계보건통계연감」 (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을 발간했다.

이 88년도판 통계연감엔 공중보건의 중요한 8개부문에 관한 통계, 즉 모성(母性)보건, 유아사망률, 평균수명,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사망원인, 1948년 이래의 마마 및 황열(黃熱)발생수,

세계의 말라리아 현황, 예방접종 상황, 수도·하수구시설 현황에 관한 통계를 담고 있다.

이들 통계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에서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 매년 홍역으로 인해 약 2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과 임신으로 인해 연간 약 50만명의 여성이 사망한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들에서 2차대전후에 폐암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 주된 원인은 흡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에서 남성의 폐암사망률은 1980~84년에 그 최고조에 달해 1950~54년의 2.65배나 되었다가, 85년과 86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나라별로는 핀란드와 영국의 경우 1970~79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현재 줄어 들고 있으며,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서독,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에선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전반적으로 폐암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35년전보다 무려 3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에선 여성의 폐암사망률이 종전에 사망률 1위였던 유방암을 현재 앞질렀거나 앞지르려하고 있다는 것.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엔 아직 증가율의 속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WHO에선 1990년대에도 폐암사망률의 증가가 여전히 주된 공중보건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남성의 사망률은 1960년대에 1950~54년의 평균보다 약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에서 전체 사망의 약5분의 1이나 차지했던 허혈성심장질

환의 사망률이 1970년대엔 크게 줄어, 현재는 1950~54년보다 약11% 떨어졌다.

나라별로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비록 나라마다 시기와 기간은 다르지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사망률은 줄어들었다. 최근에서야 줄기 시작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서독,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이다. 동구 나라들에선 비록 증가율이 얼마간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여성의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보다 낮았지만, 감소율은 남성의 경우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평균수명은 1985년에 약61세로 1950년의 46세보다 거의 3분의 1이나 높아졌다. 그리고 유아사망률은 1950년에 1천명의 출생당 1백55명이던 것이 1985년엔 1천명출생당 71명으로 50% 이상 줄었다. WHO에선 2천년까지 1천명출생당 50명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2천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75세에 겨우 2년 정도 낮은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서태평양지역에선 70세에 거의 접근했으며, 그밖에 아프리카, 중동, 동부지역 및 동남아지역은 50~60세,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지역에선 50세를 밑도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